

세계화의 도전과 노동의 응전 Ⅲ

윤효원

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제1장 세계화: 무엇을 뜻하는가

제2장 부지 나라와 가난한 나라

제3장 세계무역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제4장 세계경제의 주인

제5장 세계투자는 어떻게 이뤄지나

제6장 국제 부채, IMF와 세계은행

제7장 돈이 세계를 돌아가게 하고--

국제 금융 이야기

제8장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비용

제9장 세계화에 대한 대응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무역은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다. 그 변화는 무엇이고, 그것이 세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국제무역기구(WTO)란 무엇이고, 그것과 각국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노동운동은 이런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해왔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 장에서 다룬다.

세계무역이 늘고 있다

각국 사이의 무역은 수천 년 동안 이뤄

져왔다. 역사상 최초의 국제 무역은 5천 년도 전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상품을 파는 국제 무역은 그리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근대 문명이 쏟아낸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활발하게 만드는 촉진제의 역할을 했다. 증기선, 마차, 기차가 무역을 촉진시키고 상품을 전세계에 퍼뜨렸다. 이후 20세기에 들어와 제트엔진의 개발과 컨테이너선의 발달, 효율적인 육상교

통 시스템의 개선이 이뤄졌고, 이것은 이전 시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국제무역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제트 엔진을 단 비행기들은 24시간 전 세계를 누비며, 이쪽 대륙의 생산자가 만든 신선한 상품을 같은 날 저쪽 대륙의 소비자에게 운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정보기술의 발달은 세계무역을 통제하고 이끄는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교환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무역은 어떻게 늘고 있나?

2차대전 이후 세계무역은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는 상

품과 서비스의 '생산' 보다 빨리 성장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이래 무역은 3가지 방식을 통해 늘어났다.

1. 무역성장이 생산성장보다 빨랐다.
2. 생산품 거래가 늘었다.
3. 서비스 거래가 늘었다.

1. 무역성장이 생산성장보다 빨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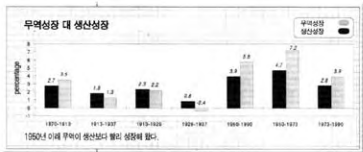
1950년 이래 세계생산과 세계무역은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1950년 이래 세계 생산은 연평균 3.9%씩 늘어났으며, 세계무역은 5.8%씩 늘어났다. 급속한 무역 성장의 이유는 선진국

국제무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국제무역은 비록 불균등하기는 하지만 각국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한다.
- 국제무역은 몇몇 나라를 매우 부유하게 만들어, 이것을 통해 강해진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압력을 행사한다.
- 국제무역은 각국이 만들어내는 상품을 늘리고, 상품을 세계 곳곳에 팔도록 만든다. 무역에서 번 돈을 갖고 각국은 필요한 서비스와 상품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각국은 무역을 통해 의존(의국존)을 할 수 있다.
- 국제무역은 각국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구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 국제무역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간에 경제 성장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 국제무역을 통해 각국은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 한 나라의 무역정책은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그 나라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방식의 무역 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 한 나라의 정책은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아프리카를 예로 들자면, 많은 나라들이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을 이유로 이 나라와 무역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다.
- 무역은 각국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보다는 전쟁의 한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 1998년 상반기에 이라크와 일본은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악화 된 세계경제에 대한 처방전을 둘러싸고 무역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치달을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많다. 1992년에도 미국은 유럽 각국에 대해 무역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이 자국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준다는 이유로 유럽산 농산물, 특히 프랑스산 치즈와 포도주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대응하여 유럽공동체(EC)는 650만 톤의 미국산 콩 수입을 금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에서 무역이 급속도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컴퓨터 혁명으로 수출을 위한 생산이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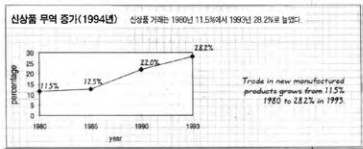
위의 표는 이전(1913~1937)에 비해 1950년 이래 세계무역이 세계 생산을 앞질렀음을 보여준다.

2. 생산품 무역이 늘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상품 거래는 1980년 이래 매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과 1993년 사이 세계 전체의 제조업 부문 수출은 연평균 7% 성장했다. 제조업 분야의 신상품 거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신상품에는 사무 기기, 자동정보처리 장치, 통신, 음향, 화상기억장치, 트랜지스터, 반도체, 전자마이크로회로 등이 있다. 1980년과 1993년 사이에 신상품의 수출은 연평균 13%씩 늘었다. 신상품의 엄청난 성장은 1980년 이래 진행된 세계 무역 확대의 주요한 원인이다. 이것을 아래 그림은 보여주고 있다.



〔표〕 한국 산업의 고용 구성 변화 (단위: 천명, %)

연도	피고용인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970	9,167	50.4	14.3	35.3
1975	11,692	45.7	19.1	35.2
1980	13,683	34.0	22.5	43.5
1985	14,970	24.9	24.4	50.6
1990	18,085	17.9	27.6	54.5
1995	20,377	12.5	23.6	64.0
1997	21,048	11.0	21.4	67.6

생산품 거래의 증가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고, 나아가 한국이 다른 나라에 생산품을 수출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과거 한국이 정책적으로 제조업 부문을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채택해온 이유이다.

3. 서비스 무역이 늘었다

서비스 부문은 세계경제에서 점차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이것은 서비스 부문이 지난 수십년 동안 급속하게 발전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가 서비스 부문 무역에 관심을 집중해 왔음을 보여 준다. 서비스 부문은 광범위하다. 서비스 부문은 레스토랑과 소매업 분야에서 교육, 보건, 공공행정, 교통, 통신, 금융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1980년대 이래 서비스 부문의 거래는 상품 거래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해 왔다. 1980년과 1992년 사이 서비스 거래는 8.3% 성장했다. 선진국들이 서비스 무역을 지배하고 있다. 선진국이 모든 서비스

거래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은 한국 경제에서도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부문에서의 고용도 증가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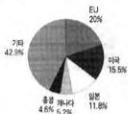
그러나 부자들이 지배하고 있다

국제무역은 항상 불평등하고 불균등했다. 부유한 선진국들이 항상 국제 무역을 지배했다. 대부분의 무역은 부자 나라들 사이에 이뤄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국제 무역기구들을 지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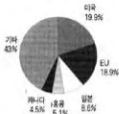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은 부유한 선진국들이 세계의 주요 수출국이고 수입국임을 보여 준다. 15개 나라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은 세계 상품 수출입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의 25% 이상이 유럽의 15개 나라들 사이에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미국이며, 1998년 들어 중국이 두번째 무역상대국으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미국에 이어 두번째 무역 상대국이었던 일본은 3위로 내려 앉았다.

세계의 주요 수출입국: 1994년



수출



수입

선진국들이 세계무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 원료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난한 나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2. 부유한 나라들은 지역 무역 블록화에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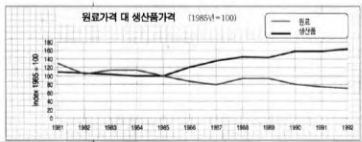
1. 가난한 나라들이 원료 가격 하락으로 고통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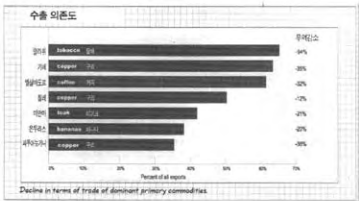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원료를 수출

하고 생산품을 수입하고 있다. 원료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가난한 나라들이 외화를 적게 번다는 사실을 뜻한다. 생산품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가난한 나라들이 수입을 위해 더 많은 외화를 지불해야 함을 뜻한다.

아래의 그림은 원료 가격이 하락해온 반면, 생산품 가격은 상승해왔음을 보여 준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단 하나의 원료나 미가공 농업생산품 수출에 여전히 의





존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7개의 개발도상국들이 단 하나의 원료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이들 원료의 가격이 1970년 중반 이래 세계시장에서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보여준다.

원료가격의 하락과 원료 무역시장의 축소는 개발도상국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으로 여전히 원료와 천연자원 무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부유한 나라들이 지역 무역 블록에 앞장서고 있다.

세계무역의 또 다른 핵심적인 특징은 각국이 경제블록 혹은 지역무역블록으로 묶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러한 무역블록은 세계경제를 더 많이 지배하려는 선진국들간의 경쟁으로 대단히 강력

한 블록이 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등 3개의 주요한 무역블록이 있으며, 이들 블록이 세계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각 블록들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선진국들이 이끌고 있으며, 이들 나라들이 무역블록을 지배하고, 가난한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무역블록

무역블록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여러개의 무역지역에서 관세를 인허하는 등의 특혜를 주고 받는 것을 뜻한다.

1) 유럽연합(EU)

1993년에 유럽 15개국이 모여 유럽연합을 만들었다. 유럽연합은 경제적 연합, 정치적 연합, 통화 연합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때로 유럽연합은 유럽 각국의 경제 장벽을 부수는 공동시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유럽연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국경통제의 완화: 이것은 사람과 상품이 유럽 나라들의 국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음을 뜻한다.

- 기술장벽의 제거: 자본운동의 제한과 유럽 기업체들 간의 협력을 위한 적절한 조건 창출.

- 유럽의회의 구성: 이것은 이미 구성되었다.

- 최저기준의 확립: 이것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며, 이미 사회현상이 제정되었다.

주요 무역블록들 가운데 유럽은 지역 경제의 통합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갖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1999년 1월 1일부터 유럽 단일 통화인 유로(EURO)를 출범시킨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11개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유로 체제에 동참하게 된다. 이날부터 프랑, 마르크, 길더 같은 유럽 각국의 고유 화폐는 사라지고 유로라는 공통화폐가 유럽을 지배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인구 2억 9천만명, 세계 총GDP의 19.4%, 세계 총무역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994년 1월,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는 NAFTA를 만들었다. 특별 NAFTA 무역조정지원기금이 NAFTA의 출범으로 실업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업보조금과 훈련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노동자의 권리와 NAFTA와의 노동협약을 처리하기 위해 멕시코와 미국과 캐나다는 전국행정처(NAO)를 만들기도 했다.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APEC은 1989년 한국-호주 정상회담



에서 호주의 호크 총리에 의해 제안되었고, 그해 1월 호주에서 12개국이 참여하는 1차 각료회의가 개최됨으로써 만들어졌다.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인

도네시아, 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나라들과 호주, 뉴질랜드, 미국, 칠레, 멕시코 같은 태평양지역 나라 등 모두 17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다. APEC은 전세계 GDP의 47.5%와 교역량의 36%를 점하는 세계 최대의 무역블록이다. APEC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으며, 1998년 11월 말레이시아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려 각국의 정상들이 경제협력을 다무기도 했다. 여기서 무역자유화를 가속화하려는 미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와 무역자유화를 통제하려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나라들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일본은 중국, 한국, 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 나라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통화기금(AMF)을 만들어 지역의 경제위기에 공동대처하자는 프로그램을 제출하기도 했으며, 지난 10월 김대중대통령의 일본방문을 계기로 한-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무역블록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1995년 1월 1일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참가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만들어졌다.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들은 이 무역블록을 남미 전역으로 확장시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응하는 '남미자유무역협정'(SAFTA)의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무역블록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지역 무역블록의 형성은 블록 안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지역블록은 선진국에서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는데, 그 이유는 선진국의 기업들이 지역의 노동력이 값싼 나라로 공장을 옮겼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무역블록에 속한 나라들의 노동자들이 생활기준의 하락과 고용불안을 겪기도 한다.

NAFTA의 사례를 살펴보자.

● NAFTA가 만들어지기 전에, NAFTA의 지지자들은 NAFTA가 1995년에 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NAFTA 출범 이후 동일인들이 3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미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멕시코로 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국 안에서 공장폐쇄가 잇따르고 있다. 그리고 멕시코에 대한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는 NAFTA 출범 이후 급증하여, 1994년에 8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1993년에 비해 64%가 증가한 것이다.

● 멕시코의 마킬라도라가 확대되고 있다. 1994년 현재 62만명의 멕시코 노동자들이 마킬라도라 지역의 2,250개 수출공장에 고용되어 있다.

● 미국노동부는 NAFTA로 인해 실업을 경험했던 5만 3천명을 위해 380개의 청원을 만들었다. NAFTA로 인한 해고는 특히 농촌 지역과 여성들에게 심각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무역블록은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NAFTA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마킬라도라

멕시코의 마킬라도라는 수출자유지역으로 평균임금과 근로조건이 멕시코의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

무역블록에 대해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럽과 캐나다와 미국 노동자들은 ① 최저노동기준을 위한 캠페인, ② 국제연대캠페인, ③ 노동자 교류 같은 사업들을 시작했다.

1. 최저노동기준을 위한 캠페인

이들 지역의 노동조합은 지역 내 모든 나라의 노동자를 위한 최저노동기준을 만들었다. 유럽과 NAFTA 나라들의 노동조합은 최저기준을 정한 사회헌장 혹은 협약을 제정했다.

2. 국제연대캠페인

노동조합은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조직해왔다. 96년말-97년초 노동법개약에 합의한 한국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위해 세계 각국의 노동조합운동이 보여주었던 지지와 성원은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3. 노동자 교류

노동조합은 각국 노동자들의 상호 방문을 조직해 왔다. 이러한 교류는 국경을 초월한 노동자 연대를 이루어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볼 문제

노동조합은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을 지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반대해야 할까요?

세계무역기구란 무엇인가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최고 국제기구이다. WTO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서 체결된 협정의 일환으로 1995년 1월 1일 정식 출범했다.

WTO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GATT란 무엇인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T는 2차 대전 이후인 1948년 1월에 만들어졌다. GATT는 주로 각국이 자국의 무역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각종 무역장벽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협상하는 규약과 포럼의 형태로 움직여왔다. 출범 이후, GATT 회원국들은 세계경제를 자유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생활기준과 임금기준의 개선
- 완전고용의 실현
- 생산과 무역의 확대
- 세계자원의 적절한 이용
- 국가경제발전과 일치하는 방향에서 환경 보호 및 보존
- 개발도상국이 국제무역에서 혜택을 얻도록 보장하는 것

1996년 1월 현재 116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회원국간의 무역 거래는 세계 총 무역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WTO 출범의 의미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규율하는 상설기구로서의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강력한 법적 강제성을 가진 상설기구가 세계 150여개 나라의 무역정

책을 관리한다는 점을 뜻한다. WTO에 비해 GATT는 임시적인 성격이 크다.

● WTO는 더욱 집중화된 국제기구로 국제경제 정책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 WTO는 지적재산권과 서비스 거래 같은 광범위한 무역 쟁점들을 처리한다. 뿐만 아니라 WTO는 투자 미래의 전망 같은 무역외적 쟁점들도 다룬다.

● WTO의 정책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해 있으며, 신자유주의적인 IMF 및 세계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은 세계 곳곳에서 경제의 자유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 선진국들이 WTO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WTO의 정책은 선진국의 이해를

생각해 볼 문제

WTO가 더욱 책임성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큼니다. 이를 위해 운영기구에 비정부기구(NGO)와 노동조합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WTO의 회원국들은 정부 대표단을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WTO를 민주화하고 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국제연합(UN)이 WTO를 책임져야 하며,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WTO에 대표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 WTO의 분쟁처리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되며, 모든 기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모든 분쟁처리과정을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단이 없다.

사회조항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이 WTO에 대응하는 한 방안으로 무역협정에 '사회조항' (social clause)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사회조항은 모든 나라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조항은 최저노동기준과 환경기준을 지키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사회조항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사회조항이 무엇이라는 정확한 개념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핵심요소들을 사회조항의 주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총회는 모든 종류의 노동 기준을 정해놓은 국제조약이다. ILO는 1995년 현재 176개 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 가운데 4개만을 비준하고 있다.

ILO협약은 다음의 사회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 결사의 자유: 노동자와 사용자들은 외부의 간섭 없이 조직을 건설하고

국제노동기구(ILO)

ILO는 1차대전 직후 전쟁으로 피폐해진 노동자들의 생활기준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할 목적으로 1919년 1월 만들어졌다. ILO는 정부, 자본, 노동 3자가 참여하는 3자기구이며, UN의 회원기구이다. 1998년 8월 현재 17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가입했다.

스스로 선택한 조직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ILO협약 87조)

- 조직결성의 권리 및 단체교섭의 권리 (ILO협약 98조)
- 강제노동금지 (ILO협약 29조 및 105조)
- 노동의 최저연령제한(ILO협약 138조)
- 차별금지: 성,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에 근거한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 금지(ILO협약 111조)
- 동일노동 동일임금 (ILO협약 100조)

위에 나온 ILO 협약의 조항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ILO 회원국 대부분이 비준했기 때문에 "핵심조항"으로 불린다.

우리는 사회조항을 가져야 하는가?

무역협정에 사회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노동조합과 선진국의 노동조합 사이, 그리고 국제산별연맹과 WTO의 대표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상황

논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참한 근로조건이 국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가? 노동기준은 무역, 경제 혹은 인권의 틀 안에서 잘 처리될 수 있는가?

● 사회조항은 생산에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가? 사회조항은 인간적인 근로조건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가? 무역협정은 상품이 거래되거나 생산되는 방식을 정하고 있는가?

● 높은 임금을 받는 선진국 노동자들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후진국 노동자들은 사회조항에서 어떤 이득을 얻을까?

● 사회조항은 다른 나라들이 특정 나라의 내정에 간섭함으로써 국가의 통합성에 해를 미치는 것은 아닌가?

● 선진국들이 임금이 낮은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조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각국의 사회조항 이행 여부를 감독할 가장 좋은 기구는 무엇인가? UN 기관인 국제노동기구, 인권위원회, WTO 혹은 이 3자기구의 협력위원회가 가장 좋은 감독기구일까?

사회조항을 지지하는 입장

사회조항을 지지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개발도상국의 조건은 구조조정 프로그램 때문에 악화되고 있으며, 비공식 노동과 빈곤이 늘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

한 공격과 노동자에 대한 억압은 개발도상국에서 비일비재하다. 사회현장은 ILO 협약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노동, 특히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 국제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노동자들을 대가로 각국이 경쟁을 하는 것을 피하도록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합의해야 한다. 사회현장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임과 억압적 조건에 기초한 노동의 국제적 분열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 사회현장은 보호주의를 촉진하는 것을 막고 무역을 자유화시킬 수 있다.

● 사회현장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최저기준을 목표로 한다. 최저기준은 단체협상을 통해 정할 수 있다.

● 국제무역이 한 나라의 사회조건과 근로조건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는 아파르트헤이트 하의 남아프리카를 민주화시키기 위해 경제봉쇄정책을 단행했고, 그 결과 백인독재정부가 전인종이 참가하는 민주선거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사회조항에 반대하는 입장

● 사회조항을 통해 선진국들은 자국의 가치와 전통을 개발도상국에 이식시키려 한다. 권리와 가치는 나라마다 다르다. 따라서 사회조항은 각국의 역사와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노동이 어떤 나라에서는 정당하며, 그 나라의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

● 사회조항은 다른 형태의 보호주의이다. 선진국은 사회조항을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사회조항은 노동조합이 힘이 없고 노동권이 행권없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

● 사회조항은 공식 부문의 노동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권에 대한 최악의 공격자인 비공식 부문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미친다.

● 사회조항은 대만처럼 UN 회원국이 아닌 나라의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조항은 의무적이지 않다. ♦

생각해 볼 문제

사회현장을 강제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와 자동차생산협정을 체결할 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협약에 사회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현대자동차공장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사회조항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도록 한국노동자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국제연대가 아닐까요?